

5. 2024. 4. 26. 금 15시까지	6. 2024. 4. 26. 금 15시까지
폭포 이형기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려친 시퍼런 칼 자욱을 아는가.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(斷末魔)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(直立)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. 그대 아는가 석탄기(石炭紀)의 종말을 그 때 하늘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(墜落)을 나의 자량은 자멸(自滅)이다 무수한 복안(複眼)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(水晶體)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(盲目)의 눈보라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2억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	가정 박목월 지상에는 아홉 켄레의 신발.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(文數)가 다른 아홉 켄레의 신발을. 내 신발은 십구 문 반(十九文半)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면 육 문 삼(六文三)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.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.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여기는 지상. 연민한 삶의 길이어. 내 신발은 십구 문 반.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. 강아지 같은 것들아.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. 아버지가 왔다. 아니 십구 문 반의 신발이 왔다.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.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.

7. 2024. 4. 26. 금 15시까지	8. 2024. 4. 26. 금 15시까지
청노루	추억에서
박목월	박재삼
머언 산 청운사(靑雲寺) 남은 기와집	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,
산은 자하산(紫霞山) 봄눈 녹으면	울어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 엄매야 울엄매,
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	별밭은 또 그리 멀어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,
청노루 맑은 눈에	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별밭에 보는 것을,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
도는 구름	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.